

# 神學教育의 현황과 발전방안

吳 成 春

(長老會神學大 神學科)

## 1. 머리말

현재 한국에는 교육부가 공인하는 신학교육기관들뿐 아니라 비공인 신학교육기관이 수백 개나 있으며(그 자세한 통계는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거기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만도 7~8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관된 신학교육제도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신학교육은 교회가 요청하는 敎役者를 양성하는 專門教育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신학교육의 제도적 통일이나 내용의 평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흔히 교단 또는 교파라고 말하는 것이다. 교파가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이해의 차이이다. 따라서 敎派마다 다른 신앙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교역자는 자기 교파의 독특한 신앙을 지키고 확장시키며, 그 신앙에 근거하여 교회를 사역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파마다 독자적인 신학교육기관을 가지고 자기 교파의 독특한 교역자를 양성한다. 그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공인된 신학교육기관을 갖지 못한 교파들은 비공인 신학교육기관을 통해서라도 자기 교파의 교역자를 양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다. 교역자를 양성할 신학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은 자기 교파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신학교육은 이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신학교육의 기본적인 전제, 신학교육의 역사적 조망, 세계와 한국 신학교육제도의 현황, 신학교육의 미래적 전망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상적인 신학교육의 가능성을 다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 2. 神學教育의 前提

### 1) 合理的 知識과 人格的 知識의 調和

신학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우선하지 않는다. 信仰共同體가 먼저 있었고, 신앙공동체의 신앙사건을 학문적으로 성찰하고 정리하면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신학은 다른 모든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학문 수준에만 머물 수 없는 독특한 학문이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한다.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 God), 즉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이요 논리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神지식은 여기에서 결코 완

전해질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를 아는 지식이 그 인격자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 the person)만으론 끝나지 않으며, 그 인격자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는 그 인격자를 아는 지식(Knowledge of the person)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그를 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말씀을 받으며 그분과 계속적인 사귀기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교육은 合理的 神지식(Knowledge about God)과 人格의 神지식(Knowledge of God)을 조화시키는 교육을 요청한다. 신학교육은 합리적인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성서신학, 역사신학, 교리신학, 실천신학 등을 연구하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신학교육은 경건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며, 敬虔訓練을 통하여 인격적인 神지식에 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학교육은 강의실에서 몇 학점을 따고 있느냐 하는 점도 중시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건훈련을 통하여 인격적인 神지식에 도달하고자 하는가의 훈련프로그램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2) 신학교육 맥락으로서의 敎會

앞서 언급한 대로 신학은 신앙공동체에 우선하지 않는다. 신학생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소명을 받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소명을 받은 자만이 신학교육을 받는다. 신학교육은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역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요 교회는 소명이 있는 자에게 신학교육을 위탁하기 때문에 소명이 없이 신학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우리는 召命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께서 불러 안수교역자(목사)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담당시키고자 하신다는 내면의 확신이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지속적으로 마음 속에 남아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이

러한 확신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넣어주셨다고 믿게 되며,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우리는 內的 召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의 확신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그 근원이 우리의 심리작용일 수도 있고 사탄적인 근원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확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따르면, 그 판단은 교회가 한다. 교회는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심사하여 교회가 정한 교육과 훈련(교단이 정하는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다시 교회의 시험과 심사를 거쳐서 그 사람의 내적 소명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한다. 교회가 그의 소명을 확신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안수교역자로서의 사명을 위임할 때에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외적으로 확인과 증거를 받는다. 이렇게 교회가 내적 소명을 받은 자를 심사하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거쳐 사명을 위임하는 전 과정을 우리는 外的 召命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적 소명을 받은 자라도 다시 개교회의 구체적인 소명을 받아야 한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교회나 기관에서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 받아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의 소명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具體的 召命이라고 부른다.

신학생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소명의 맥락에서 신학교육을 받는 것이다. 신학생은 학문의 도야나 개인적인 영성수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이 신학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며, 신학생이 여기에 안주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신학생은 교회 안에서 소명을 받으며, 교회에 의하여 그 소명을 확인 받고, 교회 안에서 그 소명의 사명을 실천한다. 만일 신학이 교회와 별개의 학문의 전달을 만든다면, 그것은 수천 년 교회 전통에서 보는 신학교와 다른 새로운 신학교육기관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敎會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감독을 받으며 신학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증으로 구체적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신

학한다. 우리는 교회와 분리된 신학함은 생각해 볼 수 없으며, 교회라고 하는 틀이 신학교육의 전제요 맥락이 된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학교육을 교역자 양성과 연관시켜 이야기해 왔으며, 교역자는 경진과 학문과 교회 사역의 전문적 기술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암시했다. ① 교회가 요청하는 교역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이 신학교육이기 때문에 신학교육은 교회의 전문 교역자 양성이라는 베팅을 떠날 수 없으며, ② 교역자는 하나님지식을 갖추어야 하되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신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③ 교회에서 그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 확장하며,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교역자는 교역의 전문기술을 연마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신학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 3. 神學教育의 歷史的 眺望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신학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은 고대교회의 교회 중심 교육, 중세기의 수도원 중심 교육, 그리고 스콜라철학 시대부터 시작되어 문예부흥 이후에 와서 크게 발달한 대학 중심의 신학교육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중심의 교역자 양성은 기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教會의 사명자들을 교육시켜 기독교의 신앙을 수호하고 확장하며, 내적으로 이단적인 사상의 도전과 외적으로 데로마제국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들볼 수 있게 하는 일은 교회가 계속 살아 남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시작부터 교회는 교역자 양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세기 말엽의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3세기의 시리아 안디옥 신학교, 4~5세기의 가파도기가 신학교 등은 대표적인 교회 중

심 신학교육의 모델이 되었다. 교회 중심의 교역자 양성모델은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 신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를 제시한다. 그것은 신학교육은 교회의 신앙수호와 확장, 그리고 교회들 위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확고한 신앙에 기초한 교회를 위한 전문 교역자 양성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원 중심의 신학교육은 3~4세기경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 修道院이 생겨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6세기 중엽 이탈리아에 성 베네딕트 수도원이 수도원 중심 신학교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성 프란시스 수도원, 성 도미니코 수도원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수도원이 생겨나면서 수도원은 학문을 연구·보존하는 곳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교역자 양성의 중심이 되어 왔다. 수도원은 일반 수도인들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과 교회 교역자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법, 수사학, 변증학,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의 일반 학과와 철학, 신학 등의 학문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도원 중심 교육의 특징은 고해를 통한 인격도야, 순결, 청빈, 복종의 덕을 실천하여 신앙과 경건을 훈련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인격, 신앙, 경건 등을 겸비한 교역자 양성 이상은 중세 후기에 대학 중심의 신학교육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도 신학교육의 중요한 이상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최근에 시작된 대학 중심의 신학교육은 사회적으로 시민사상이 생겨나고, 철학적으로 문예부흥을 거치면서 인문주의 사상이 서구사회를 풍미하며, 종교적으로 종교개혁의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 大學 중심의 신학교육은 합리적인 이성을 활용하여 신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학교육을 조망해 볼 때, 신학교육은 그 중심에 세 가지 기류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혹은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 기류가 다른 기류를 압도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조화되기도 하면서 신학교육의 제

도와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교역자 양성이란 데에 너무 치중하던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신학연구가 위축되기도 했고, 대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게 되던 무미건조한 학문연구에 치중하여 교회의 활기를 잃었다. 동시에 수도권적인 요소들, 특히 경건과 신앙을 강조할 때 신학교육은 교회와 관계없는 개인의 인격 수양과 도야에 그치게 하는 폐단도 있어 왔다. 그러므로 오늘의 한국 신학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에는 수도권적인 인격도야와 신앙과 경건훈련, 교회 중심의 전문 교역자 양성, 대학 중심의 학문연구 등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 4. 神學敎育의 學制

##### 1) 歐美의 신학교육제도

신학교육의 제도는 위에서 본 역사적 유산들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학제는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형태로 남기보다는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수정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의 교육제도도 유럽형, 북미형, 카톨릭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럽형은 대학 중심의 신학교육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고, 북미형은 교회 중심의 제도요, 카톨릭 신학교들은 대체로 수도권 중심 신학교육제도에 대학 중심 교육제도를 절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유럽형은 독일의 신학교육제도에서 그 모델을 찾아 볼 수 있다. 독일의 국립대학에는 모두 신학부가 있어서 여기에서 독일 교회의 교역자를 양성한다. 신학을 지망하는 자 중 고등학교 졸업(한국의 초급대학 졸업) 후에 대학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하여 주로 신학공부에 필요한 교양과목들을 3~6학기 정도 공부하고 신학 본과 과정에 들어가 5~6학기 동안 신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바로 이 과정이 끝나면 제 1차 신학시험을 치고 목사후보생으로 실천신학 실기훈련과 현장실습을 2년 정도 받게 되고, 훈련이 끝난 후에 제 2차 신학 시험에 합격하면 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러한 유럽형 신학제도의 특징은 교회와 관계없이 대학교 신학부에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연구할 수 있으며,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소명을 받고 실천신학 실기훈련을 거쳐 교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이면서도 약점은 신학교육의 세 가지 중심 주제 중 학문연구(신학 예과·본과 수업)와 교회의 교역을 위한 전문기술 훈련(실천신학 실기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주제는 잘 준비할 수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신학교육 주제인 인격도야와 경건과 신앙훈련을 하는 데 제도적으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신학교육제도는 북미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교회는 변호사, 의사의 수준과 목사의 수준을 같게 하려고 처음부터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받아 신학교에서 3년간 연구하게 하며, 이 기간 동안에 교회현장실습(6개월간 학기를 쉬면서)과 목회임상훈련(졸업하기 전에 과목수강을 필수로 하고 있다)을 통해서 교역자로서의 전문기술을 연마케 한다. 미국 교회는 독일 교회와는 달리 신학 후보생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후보생을 선발, 추천, 계속지도를 담당하여 교회 중심 신학교육제도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신학교육은 일반 대학교육과 같이 학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대학 중심의 신학교육제도를 혼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신학교육제도에서도 수도권적인 훈련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韓國敎會의 신학교육제도

한국 개신교 교회의 신학교육제도는 처음부터 敎會 中心의 교역자 양성제도를 취하여 왔다. 그 이유는 한국에 개신교가 전파되어 들어올 때의 상황이 기독교회가 탄생하여 전파되기 시작하던 1~3세기 고대교회의 상황과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하던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새로 탄생되는 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 확장하며, 내외적으로 도전을 받아 흔들리는 교회를 돌볼 교역자의 훈련이 절실했다. 이러한 교회의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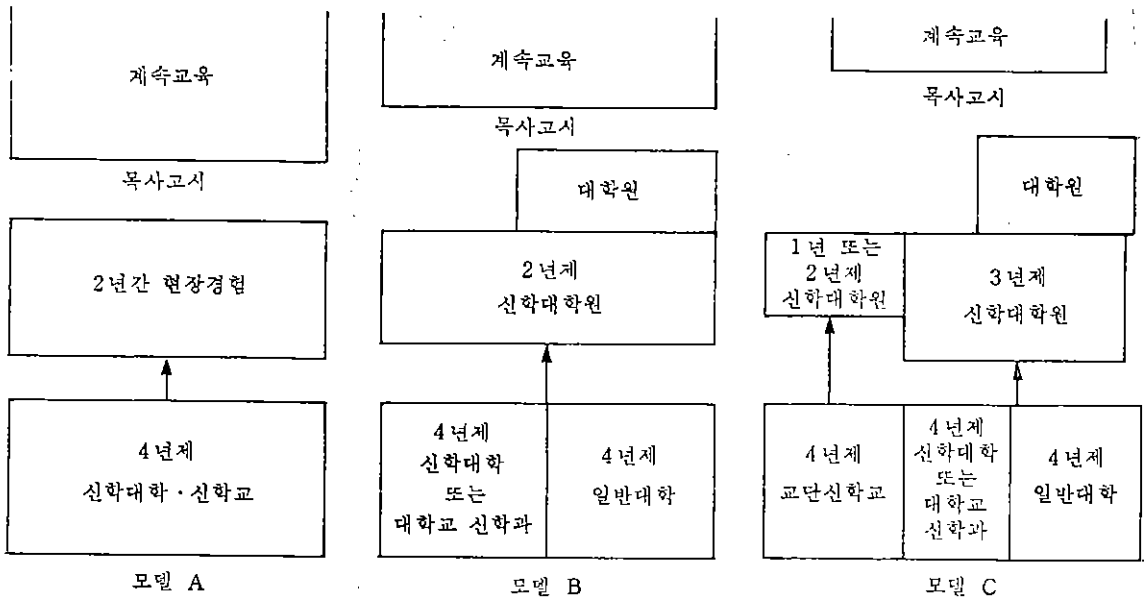
이 1901년에 처음으로 교역자를 양성할 목적의 신학교를 개설하게 만들었다. 이 학교는 장로교단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 이후에 감리교단과 성결교단도 자기 교단의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신학교들의 공통된 특징은 ① 신학교마다 자기 교단의 신앙과 신학과 경치에 맞추어 신학을 공부하게 하였기 때문에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어야 하며, 교단마다 신학교는 하나로 국한시켰다는 점, ② 철저히 교회의 관리하에 신학교를 운영하였다는 점, ③ 신학생들을 교회가 지도하고 감독하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역자 양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점 등이다.

남북한이 분열되어 두 개의 한국이 되면서부터 수많은 교파가 분열되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수백 개의 교파들로 나누어졌다. 각 敎派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신학을 표방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독자적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교파가 요청하는 교역자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육부의 사이비(?) 신학교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더 많은 신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이다.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신학교들이 교육부의 학교설립인가 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이비

신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교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교파의 신앙을 수호할 교역자의 훈련은 필요한데 교육부는 학교설립인가를 해주지 않으니 편법을 써서라도 자기 교파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교회 중심의 신학교육제도를 선택해 온 한국 교회 신학교육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교육부 대학령에 의한 신학대학이 생겨나면서부터(물론 이전부터 신학교로서 교역자를 양성해 오던 기관이 교육부인정 교육기관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만), 한국 교회 신학교육제도에 대학 중심의 신학교육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독교대학 안에 신학파가 허가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아주 짙어지게 되었다. 현재의 한국 신학교육제도는 교회 중심의 신학교육제도에 대학 중심의 제도를 가미한 교단신학교(단립 신학대학을 포함해서)와 순전히 독일식 대학 중심의 신학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독교대학 신학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의 신학교육제도에 구미 교회와 같이 수도원적인 훈련의 요소가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것이 근본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

〈그림 1〉 신학교육제도와 수업연한



한다.

그러나 크게 보면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교회 중심의 신학교육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학제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학제와 수업 연수를 갖고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학제와 수업 연한을 살펴보면 앞의 <그림 1>과 같다.

## 5. 神學教育의 未來的 展望

한국 교회의 교역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으로서 신학교육의 미래적 전망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용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교파주의 신학교육의 극복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파마다 나름대로의 신학교육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인적·재정적 자원낭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파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信仰의 自由에 기인한 것이다. 그것이 사회를 파괴하고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이단적인 것만 아니면 각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신앙을 가질 자유가 있다. 교파가 각 사람의 신앙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온 것이면, 그 교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 교파가 요청하는 교역자를 양성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교육의 전체화나 세계화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각 교파는 자기들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신학교육기관을 갖고 자기 교파의 교역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多樣性의 바탕 위에서만 우리는 신학교육의 발전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신학교육의 土着化에 대해서도 크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신학교육은 너무나 서구적인 내용과 방법 일변도였다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사실 한국 신학교육이 脫서구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매우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탈서구화가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회 전통에 기초하지 않고 동양적인 宇宙관이나 가치관에 신학의 옷을 입혀 토착화의 이름으로 내놓는 것이면 그것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학 그

자체가 성경과 교회역사와 전통에 기초하여야 한다면 土着化 논의는 신학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마련할 수는 있으나, 신학교육 자체의 토착화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신학교육의 미래적 전망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 1) 敎役의 專門性 훈련 강화

한국의 신학교육은 미국식의 교회 중심 교육 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교역의 전문성을 훈련시키는 데 매우 약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학교육은 교과중심의 이론교육에 중점을 두면서도 교역실기 훈련과 교역자로서의 전문기술 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은 3단계 과정의 신학훈련을 요한다. ①모든 신학과 교수들은 전문분야별로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교회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나왔으며, 그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교역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며, 어떠한 실천적 암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②그러기 위해서 신학 교수들은 학문에서만 전문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교역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신학교의 교과과정 가운데 교회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역의 전문기술을 훈련하는 과목들을 많이 개설하여 전문교역자 양성에 주력하여야 한다.

### 2) 信仰과 人格訓練의 구체화

한국의 신학교육은 수도권 중심 신학교육제도의 중점사항인 신앙과 인격훈련을 교과과정에 구체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신학교들은 중세기로 마카톨릭교회와 같이 신학교를 수도권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중심의 학문연구가 중점이 되어 가는 신학교들이 이제는 학문연구와 꼭 같은 비중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신앙훈련과 인간수련을 위한 교과과정에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할애하여야 한다. 이것도 3단계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모든 신학교수들은 신학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신지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신학교수가 되어야 한다. ②예배, 사경회, 신앙수련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고 이것을 학과공부에 못지 않게 강조하고 힘을 기울여 실천해야 한다. ③경건훈련, 기독교영성, 인격형성, 인간성장 등의 과목들을 개설하여 교과목을 통해서도 인간수련과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3) 敎育年限의 연장

신학교육의 교육연한은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7년이 바람직하다. 지금 장로회신학대학이나 총신대학 등은 7년제 커리큘럼에 따라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작은 교파에서는 7년 교육이 재정·인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의 발전이 급속히 진전되는 만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효과 있게 전도하고자 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서 제시한 '교육모델 C'의 7년 교육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본다.

### 4) 敎會現場과의 連繫 강화

신학교육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많은 경우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교육과 바닷교회의 교역현장과는 상당한 괴리 현상을 드러낸다. 신학교육의 수준은 계속 높아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바닷교회 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하려면 현장교역자의 신학교육에의 활용, 신학생들의 현장체험기회의 부여 등을 통해 현장과 신학교육을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신학교육은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가 요청하는 교역자를 양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5) 神學敎育의 交流 확대

신학교육은 세계성·전체성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각 교파마다 타협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신학적·신앙적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모든 교단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전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교단의 독자적인 신앙과 신학을 지키면서도 모두가 공유하는 신앙전통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신학교간 교류의 확대, 신학교간 강의 교류, 신학교수의 교류, 학생들간의 교류 권장 등을 통해서 각자의 독특성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공통점들을 나누는 열림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한국이 세계화되는데 오히려 신학은 폐쇄되고 문을 닫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參考文獻〉

- 박근원, 『오늘의 교역론』, 대한기독교출판사.  
 이득충 편, 『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서적.  
 장로회신학대학, 『2000년대를 향한 신학과 교육』, 장신대출판부.  
 \_\_\_\_\_, 『신학방향』, 장신대출판부.  
 \_\_\_\_\_, 『장신논단』, 제 1권, 1985.  
 Niebuhr, H. Richard & Williams, Daniel D., *The Mini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Harper & Row, 1956.  
 \_\_\_\_\_, *The Advancement of Theological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1957.